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

정 우 진 |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팀 사무관

각국의 상이한 안전기준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적 무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협 의기구(WP.29)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 조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05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간다. 굳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올해 국내외 자동차 분야에서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상처음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1,50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던 등록번호판이 대폭 개선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호조를 이어가 생산 및 수출에 있어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수십년간 세계 최대의 자동차업체로 군림해 오던 GM이 경영 악화로 신용 등급 추락의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04년 현재 약 150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수출의 12.6%를 차지할 만큼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자동차는 국제적으로 널리 거래되는 상품 중의 하나로서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의 기준이 되는 안전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와 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제작기준, 검사 기준, 안전도 평가제도(NCAP), 리콜 등에 활용되는 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부 자동차 업무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안

전기준은 그 나라의 교통환경, 기술 수준, 자동차 운전문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고유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UN 산하의 자동차안전기준국제협의회기구(WP.29)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WP.29에는 현재 49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의 제정을 위해 1958협정 및 1998협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에 비해 WP.29 참여가 늦었던 미국, 일본은 WP.29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HTSA(연방도로교통안전청)내에 국제기준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GRSP(충돌안전전문가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JASIC(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센터)의 설립, G/I meeting 개최, WP.29 본부 소재지인 스위스 제네바 현지 인력 파견 등 안전기준 국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정부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의 선진화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이다. 다시 말

해 국내 기준을 정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킴으로써 국산 자동차의 기술적 호환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의 수출을 지원하고, 신기술 등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내 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확보토록 하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WP.29에 96년부터 처음 옵저버로 참가한 이래 01년 1월에 1998협정에 가입하였고, 04년 12월에는 1958협정에 가입하여 현재 정식 회원국으로서 WP.29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안전기준인 ECE 규정과 GTR을 국내 규정으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R13H(승용차 제동장치), R19(전면안개등), R58(후부안전판) 등 3개의 ECE 규정과 GTR No. 1(문열림방지장치)의 국내 기준 채택을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국제기준 채택건수를 매년 늘려나갈 계획이

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기준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의 자동차분과에서는 의장직을 수행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WP.2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국제화는 정부 단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 뿐 아니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완성차 및 부품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준 국제화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WP.29의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안전기준 기준의 국제화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추진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동차 강국으로 거듭나는 길이다.